

# 해남군 공모사업 예산 확보 3년 연속 1500억원 돌파

### 올해도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127건 1501억 확보

### 지난 6년간 7410억여원 사업비 확보 현안사업 추진 속도

해남군이 최근 잇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중앙부처와 전남도,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 연속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12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01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2021년에는 127건 1884억원, 2022년 130건 1591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연속 1500억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올해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수산양식기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425억원을 비롯해 농촌공간정비사업 127억원, 상권활성화사업 60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이면 구성지구에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산양식기재 기업단지, 물류센터, 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또한 2022년 현산면 시등지구(50억원)에 이어 올해는 산이면 금호지구가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산이면 금호지구 폐교와 폐공장, 축사 등 유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는 어울림센터, 귀농인입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도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해남읍 읍내리와 성내리 일원의 상권에 대해 디지털 상권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춘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7억원,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2억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3억원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해남군은 민선7기부터 지역의 장기성장 발전을 담보할 굵직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난 6년간 공모사업을 통해 7410억여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 지원센터 설립'과 '탄소중립 에듀센터' 등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의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협약'과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육성 선도사업' 등 분야별 공모에도 다양하게 선정돼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도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온 결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며 예산확보와 군정 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만들어 왔다"며 "2023년의 마무리를 기본 좋은 성적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내년도도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해 지역 활력을 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군 치매안심센터 농한기 치매예방 교실

### 문화체험·도기 빚기 등 호응

영암군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도기 빚기' '천연 염색' 등을 펼치며 농한기 치매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영암군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다양한 문화체험을 운영했다. <사진> 이달 11~18일까지 9일간 농한기에 맞춰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했다. 영암군은 '기(氣)찬맛길 따라 마실가자'라는

주제를 내걸고 치매안심마을인 군서면 모정리-검주리 마을, 장암리 1·2리 주민 200여 명과 수업을 진행했다.

도기 빚기와 천연 염색 체험, 치매 예방 걷기 등을 펼쳐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치매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신안군 환경미화원 폐페트병 재활용 친환경방한복 보급

### 환경보호·복지증진 일석이조

신안군이 환경미화원에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방한복을 지급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방한복을 구매해 환경미화원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제품 활용촉진과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쓰고 버린 페트병을 재활용해 국제적 재활용 인증을 받은 원료와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한 환경보호 섬유로 제작된 방한복을 구매했고 환경미화원 52명에게 보급했다.

재활용 공정은 페트병 수거해 분쇄를 제거 후 스펀지 프레이크 생산, 섬유의 원료가 되는 쌀알 크기의 칩 완성, 실을 뽑아내 원단과 염색과정을 거쳐 제품생산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페트병은 폐기물 처리 시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미화원은 실의 근무로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신안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행정 종사자를 위해



신안군 환경미화원들이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방한복을 착용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측정, 안전모 등 각종 보호구 지급, 노후 청소차 교체 등 청소장비 현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폐페트병 재활용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매 사업은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신흥마을회관 준공

### 주민들 계획 수립부터 신축 동참

영광군은 최근 묘량면 신천리 신흥마을회관을 새로 지어 준공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식은 신축 현장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운데 진행됐다. 마을회관은 신흥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들여 마련됐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만들기 경진대회에 참가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동참했다.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물 정비와 산책로·주민 쉼터·마을회관 조성 등을 진행했다.

지상 1층 연면적 85.83㎡ 규모인 마을회관은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주민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목포시 '4차산업 교육 중심지' AI 메타버스 센터 인기

### 인공지능·메타버스·코딩 등 체험

### 빅데이터 개발자 과정 수강생 모집

목포시가 4차산업 교육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설립한 'AI 메타버스 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청년스마트도시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옛 청호중학교에 구축한 AI 메타버스 센터가 청년과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을 시작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수강생들은 내년 3월까지 교육을 수료하고 취·창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AI 메타버스 센터는 27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을 개강할 예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 공유·개발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진행 중이다.

AI 메타버스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에는 목포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의 많은 관심으로 12월 중순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목포 'AI 메타버스 센터'를 찾은 한 학생이 가상현실(VR) 체험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체험 프로그램은 헤드셋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 태블릿을 활용한 가상캐릭터 만들기,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운동·모험·영상 체험, 크로마키 영상 촬영, 인공지능 교육, 로봇 자율주행 실습 등이 있다.

참여자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4차산업을 주도할 신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한편 AI 메타버스 센터는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협력해 구축한 디지털 융합훈련 기반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시설장비 공유·개발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진도군 10레인 규모 불링장 신축 본격 운영

진도군이 진도공설운동장 일원에 10레인 규모 불링장(사진)을 신축, 최근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진도군은 최근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영우 진도군의 회 의장, 김인정 전남도의 원, 조규철 체육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링장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식과 함께 1회 진도군수배 불링대회를 열어 80여 팀이 기량을 겨뤘다.

불링장은 국비 11억원과 군비 24억원 등 3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올해 8월 준공했다.

943.41㎡ 규모로, 총 10레인을 설치하고 휴게실, 사물함실 등의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진도군은 지난 11월 진도군체육회와 위수탁 운



영 협약을 맺어 약 1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이 기간 하루 평균 100여 명, 총 2800여 명의 군민이 불링장을 이용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신축한 불링장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완도군이 최근 개최한 '2023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관광 사진·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 해양치유센터 내달까지 수상작 전시

완도군은 최근 '2023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UCC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을 주제로 진행됐다.

완도군은 적합성과 작품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진 부문 수상작 50점과 동영상 부문 10점을 선정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는 전석금(경기 안산시)씨의 '서편제 은하수'가 선정됐다.

동영상 부문 대상은 '여행에 미쳤다' (경기 안양시) 팀의 '완도의 숨'이 차지했다.

사진 최우수상은 김운봉(충북 증평군)씨의 '바다나뉨시'와 김경란(경기 안산시)씨의 '아름다운 슬로라'가 받았다.

동영상 최우수상에는 윤치영(경기 고양시)씨의 '내가 만난 완도, 당신이 만날 완도', Yousufi Wahab(완도군 신지면)씨의 '더 스마일 아일랜드'가 뽑혔다.

부문별 우수, 장려, 입선작은 완도군 누리집 문화관광,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담아낸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완도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수상작들은 군 홍보에 널리 활용돼 치유와 섬 완도를 알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